

# 섬 피서객 크게 줄었다

## 젖은 비·기상악화 ... 예년보다 10~20% 감소

올 여름 계절라스 호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수와 신안 등 전남지역 대표적인 피서지의 여객선 승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피서철 특별 수송기간이었던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섬과 바다에서 여객선이나 유람선을 이용한 피서객은 25만3천9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여객선을 이용한 피서객 25만3천90명에 비해 무려 19%인 5만8천여 명이 감소한 것이다.

정기 여객선 이용객의 경우 13만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가 줄어들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유람선(유선)과 도선(정해진 운항시간 없이 승객 탑승 여부에 따라 운행) 이용객은 무려 30%가 감소한 12만3천여 명에 그쳤다.

목포와 신안 등 전남 서부권을 관할하는 완도 해경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여객선 및 유·도선 이용객이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올 피서철 완도~보길도 등 총 16개 항로의 여객선 및

유·도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2만7천95명이 줄어든 24만4천583명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젖은 비로 인해 피서객이 줄어든데다,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승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완도~신지를 잇는 신지대교 등 연도·연륙교가 잇따라 개통한 탓에 이용객이 줄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상악화로 섬을 찾는 승객이 줄었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조생종 나주 햇배 수확 한창

나주시 금천면 금천농장 김경호(55)씨 농장에서 조생종 햇배 '원황' 수확이 한창이다.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수확시기가 빨라진 이 배는 크고 육질이 단단하며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연합뉴스

## 목포 삼학도 조경수 '흠쳐가고 말라 죽고'

### 누운 향나무 수심그루 고사

목포시가 최근 삼학도 복원 사업에 따라 심어놓은 조경수들이 잇따라 말라 죽거나 도난당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복원된 산점동 삼학도 공원의 경우 지난 3~5월경 조경수로 심어놓은 '누운 향나무' 200그루 가운데 30여 그루가 말라 죽었으며, 일부 향나무는 몰지각

한 사람들이 뽑아가 버려 같은 품종의 나무를 다시 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한 향나무들은 바닷물이 직접 닿는 토양에 식재되어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피해가 예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관계자는 "조경 공사가 끝난 후 일부 주민들이 누운 향나무를 뽑아가는 등 도난 사고가 발생, 보식 작업을 했다"면서 "조경수 훼손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나무를 다시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올 들어 삼학도에 5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등 모두 20종 2만 4천189그루의 조경수를 심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강진군 '드림팀제' 성공적

### 시행 100일 맞아 주민 설문... 92%가 '정착' 전망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드림팀'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진군이 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지역민과 공직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83명 중 86%가 팀제 시행을 알고 있으며, 92%는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팀장의 리더십 변화에 대해서는 91%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으며, 부문별 효과로는 '결재단계 축소'(79%), '업무책임성 강화'(52%), '신속한 의사결정'(39%) 등을 들었다.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8%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84%는 "수직적 조직을 수평적으로 보완·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강진군은 지난 5월 기준 13개 실·과 56개 담당(계장)을 1실 25팀으로

봉쇄로 바꾸는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같은 전면 팀제는 전국 강진군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팀장은 5급 11명과 6급 14명 등 25명이 맡았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전남도 가로수 DB 구축

전남도 내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효율적인 가로수 사후관리를 통한 행정력 절감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시·도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가로수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모두 445개 노선에서 노선별, 수종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현황을 파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홍원기자 redplane@kwangju.co.kr

## 중국 최대 민간택배회사

### 광양항 물류단지 투자

중국 최대 민간 택배회사인 신통특송유한공사 대표단이 광양항 배후물류단지를 방문해 투자사를 밝혔다.

16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신통특송유한공사 진덕군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방문, 광양항 배후 물류단지를 둘러보며 투자여건을 살폈다.

이 회사는 중국 택배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민간 회사로, 이번 방문 기간 중 국내 물류기업인 동

부익스프레스(주) 및 (주)창명과 택배 서비스를 교차 지원하는 국제택배 계약을 체결했다. 또 동부익스프레스(주)와 더불어 (주)창명이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건립 중인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신통특송유한공사가 (주)창명과 공동투자를 추진 중인 배후물류단지 내 공동물류센터는 오는 9월 말 완공예정이며 10월 초부터 본격 가동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임원 대상 유통활성화 방안 교육

### 농협 나주시지부

농협 나주시지부는 지난 14일 나주시지역 농협 임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임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초청강사로 나선 (주)지역농업 네트워크 박영범 대표는 지역농협의 유통활성화 방안으로서 브랜드마케팅 시스템 구축, 지역농업 주체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강의로 임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나승문 지부장은 "급변하는 농



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일차린 마음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진도 '토요민속여행' 피서객에 인기

### 매주 토요일 북놀이·어울마당 등 공연

매주 토요일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토요민속여행'이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

진도군은 지난 97년부터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진도에 서만 볼 수 있는 강강술래, 진도 북춤 등 전통 민속 위주의 다양한 공연을 356회 실시해 왔다. 오는 18일에는 '여름 소식'이란 주제로 남도민요와 단막 창작 흥부전 '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

목'에 이어 관소리, 진도 북놀이, 진도 아리랑 어울마당 등이 펼쳐진다. 또한 25일에는 '진도의 신명전'이란 주제로 육자배기와 소포 절골농악, 진도아리랑 등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한편 '토요민속여행'은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8천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15만여명의 관광객들이 관람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다.문의(061-381-3388) /담당=차재희기자 jhwha@



## 임진왜란때 출전 앞서 지낸 '독제'

### 전통예술복원·재현사업 1호 선정

#### 문광부서 6천만원 지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출전에 앞서 지냈던 '독제(籘祭·사진)'가 문화관광부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사업 1호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문화관광부가 올해 처음 공모를 실시한 '전통예술분야 복원 및 재현사업'에 독제 재현 사

업으로 응모해 당선되면서 문광부로부터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독제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이 출전에 앞서 좌수영성(현 전남관 일대)에서 군대의 맨 앞에서는 '대장기'를 꽂아놓고 바다를 향해 승리를 기원하며 울렸던 장엄한 제사이며 출정의식이

다. 시는 독제 음악·무용·의상의 고증·복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공 교수에게 의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독제를 처음 발굴한 향토민속문화보존회(회장 정홍수)에 재현을 맡겨 오는 11월 26일부터 3일간 여수 진남관 일대에서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삼도 수군통제영이던 여수에서 지방제세의 원형을 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함평 세계엑스포 성공 기원합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자기 1점 기증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나비가 새겨진 도자기 1점을 함평군에 기증했다.(사진)

윗부분 폭 34cm, 높이 20cm 크기의 기증 도자기는 청나라 도광년제(1821~1850년)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꽃과 나비가 화려하게 채색돼 있다.

김 지사는 이석형 함평군수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비축제를 가장 성공한 지역축제로 키워내고 나비와 곤충을 주제로 한 2008년 엑스포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나비가 그려진 도자기를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내년 4월 18일부터 45일간 개최하는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기간에 김 지사의



기증품 및 나비가 새겨진 국내 도자기와 고가구, 세계 각국의 나비·곤충 관련 명품 등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할 예정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함평 엑스포 현장 전봇대 없앤다

### 군·한전 등 사업비 부담 지중화 사업 착수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등지의 '2008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현장이 전봇대가 없는 깔끔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함평군은 최근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점, ㈜KT, ㈜LG와 워킹 전남지사와 각각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전주(電柱)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총 18억여 원이 투입되는 전주 지중화 사업은 엑스포회장 전체와 함평

읍 함평역교~함평교 구간의 총 100여 개에 이르는 전봇대와 통신선, 케이블선 등을 땅속으로 묻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전신주와 유선이 깨끗이 정리되면 엑스포회장의 미관 조성은 물론 친환경 엑스포로서의 위상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담양 메타세쿼이아 마라톤

### 11월11일 개최

'제5회 담양메타세쿼이아 전국 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 11일 개최된다.

담양군이 주최하고 담양 마라톤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하프·10km·5km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3천명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대회 홈페이지(metarun.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의(061-381-3388) /담당=차재희기자 jhwha@